

관광객·도민 항공료 부담 다시 커진다

중동 정세 따라 국내선 유류할증료 오르락내리락
6월 역대 최고 3만5200원→8월 1만6500원으로 인하
9월에는 2만900원… “항공요금 부담 완화 대책 절실”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월 다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나 업무 등으로 육지를 오가는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 여행 수요가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항공 공급좌석 감소와 맞물릴 경우 최근 휴가철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관광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9월 1일 발권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2만9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1만6500원)보다 4400원 오른 금액이다.

그동안 8개 국적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적용해 온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4월 7700원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3만4100원까지 급등했고, 6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만5200원을 기록했다. 이후 7월 2만4200원, 8월 1만6500원으로 두달 연속 내렸지

만,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항공유 가격이 상승해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에 제주 관광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수준이었던 6월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6~7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내국인 관광객이 최근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여왔는데 9월 유류할증료가 다시 오르면 여행 비용을 높여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8월까지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9월에도 추가 인하돼 항공료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시 인상된다고 하니 걱정된다”며 “중동 정세가 빨리 안정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관광 활성화와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9만2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내국인은 15만8600명으로 3.1%, 외국인은 3만3600명으로 24.5% 각각 늘었다.

올해 월별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월 14.0%, 2월 24.3%, 3월 13.1%, 4월 0.9%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유류할증료가 급등한 5월에는 7.1% 감소로 전환됐다. 이어 6월에 11.5%, 7월에는 5.4% 각각 감소하는 등 관광시장 부진이 이어졌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바람 가르는 카이트서핑 5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카이트서퍼들이 바람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유초중 공립교사 129명 선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교사 129명을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5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사를 선발하는 ‘2027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유치원 7명, 초·중 26명, 특수(초·중) 9명이다. 중등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교사를 포함해 모두 87명을 선발한다.

김지은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태풍 간접 영향 8~9일 단비 내린다

마른 장마 이후 비 소식이 없던 제주에 한달 여 만 마른 대지를 적셔 줄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7일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인 8일부터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9일 제주전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5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7일 오전 발표된다.

태풍 ‘돌핀’은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0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3km로 서진하고 있다. 강도는 3으로 약화됐지만 중심에서는 여전히 43m/s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10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4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핀’은 9일 오전부터 북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 태풍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제주지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새벽부터 제주도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제주도남쪽바깥바다는 최대 5m까지 매우 높겠다.

위영석기자

반려동물 동반 버스 탑승 ‘논란’

버스 기사, 제주도에 민원
“반려견과 승차한 승객이
탑승 문제 지적한 기사를
퇴출시키라고 한다” 호소
법상 원칙적으로 탑승 제한
도 “다른 승객 불편 안 주는
전용가방 이용 승차는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애완산업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시내버스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 15년 넘게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민원인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를 교육이 필요하다. 퇴출시켜 주세요’라고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예로 버스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버스 기사는 “버스는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라며 몰상식한 승객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겨 반려동물 동반 탑승 문제가 여러차례 논란이 됐음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상 규정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탑승을 제한하되 애완동물을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운반상자에 넣은 뒤 안이 안 보이게 해야 한다(장애인 보조견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시내버스에 탑승할 경우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되어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전용 이동 가방이 있다면 애완견도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있으면 버스기사 입장에서 중간에 내리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애완견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는 주변사람들의 불편이 많으니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고향사랑 지정 기부로 꽃자왈 사유지 매입”

도, 올해 20억 모금 목표
총 8만㎡ 규모 매입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꽃자왈 사유지 매입 비용을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꽃자왈 등 2개로 나뉘어 진행하며 모금 목표액은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이다.

제주도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꽃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비슷한 방식의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10억원을 모금했다. 제주도는 모금된 지정기부금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 7만3955㎡의 사유지 꽃자왈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누리집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게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